

金澤榮과 개성 문인*

노관범**

차례

1. 머리말
2. 조선 말기 金澤榮의 문헌 편간과 개성 문인
3. 국망 전후 『滄江稿』, 『崧陽耆舊詩集』의 간행과 개성 문인
4. 식민지 시기 『滄江先生實紀』의 간행과 개성 문인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개성 문인들의 집합적인 존재 양태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 말기 김택영이 『初菴集』, 『西原家稿』, 『金氏史補』, 『崧陽耆舊傳』, 『崧陽耆舊詩集』, 『燕巖集』 등을 편찬할 때 그를 도왔던 개성 문인들, 국망 전후 김택영이 『滄江稿』와 『崧陽耆舊詩集』을 간행할 때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개성 문인들, 그리고 식민지 시기 김택영을 추모하는 책자 『滄江先生實紀』가 간행될 때 여기에 참여했던 개성 문인들의 규모와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朴文達 이래 개성 문단의 핵심을 장악했던 19세기 유력한 개성 문인들이 모두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조선 말기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참여하였다. 둘째, 김택영의 중국 망명 이전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성 문인들은 크게 김택영이 결성한 黃花社 동인들인 崔中建, 朴載鉉 등과 김택영의 핵심적인 문인들인 王性淳, 林圭永 등이었다. 셋째, 김택영의 중국 망명 이후 『창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조교수 / jagang17@hallym.ac.kr

강고』와 『송양기구시집』 간행 사업을 후원한 개성 문인들은 20세기 전반 개성에서 문학과 실업을 병행한 자산가들이었다. 넷째, 김택영 사후 『창강선생실기』 편간 사업에 참여한 개성 문인들 중에는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성균관에서 활동한 개성 유림들의 비중이 높았다. 다섯째, 김택영의 핵심적인 문인들은 왕성순과 임규영 외에도 김택영에게 少友라는 호칭을 들은 孔聖學과 金謹鏞, 그리고 개성 문인들을 대표하여 김택영에 관한 遺事를 지은 李箕紹로 집약된다. 이들은 김택영에 대한 뚜렷한 후학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은 20세기 전반 개성 사회에서 전개된 다양한 지역 운동의 집합적 주체로서 역사적 중요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들의 지역 운동은 별고를 기약한다.

주제어 金澤榮, 개성, 개성 문인, 滄江稿, 崧陽舊蓄詩集, 滄江先生實紀, 지역 운동

1. 머리말

이 글은 지역 지성사의 시각에서 金澤榮(滄江, 1850~1927)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한국 근대 개성 문인들의 집합적인 존재 양태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김택영은 개성 출신의 저명한 한문학 작가이자 한국 근대 초기 중요한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주로 한문학 분야와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김택영은 李建昌의 지우를 받아 일찍부

1) 김택영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일별하는 데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崔惠珠, 『韓國에서 金澤榮 研究 現況』, 『史學研究』55·56, 한국사학회, 1988; 김승룡, 『滄江 金澤榮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人物史研究』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한문학 분야의 연구로는 다음 논저들이 있다. 金都鍊, 『寧齋 李建昌과 滄江 金澤榮의 古文觀』, 『韓國學論叢』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박충록, 『김택영 문학 연구』, 룡녕민족출판사, 1986; 金允朝, 『燕巖 文學의 계승 양상에 관한 한 고찰』, 『漢文學研究』10, 계명대학교 계명한문학회, 1995; 吳允熙, 『滄江 金澤榮 研究』, 국학자료원, 1996; 金承龍, 『滄江 金澤榮의 傳 연구』, 『민족문화사연구』18, 민족문화사학회, 2001; 金普都, 『亡命 後 金澤榮의 世界觀 研究』, 『古詩歌研究』16,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黃載文,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韓國漢詩研究』13, 태학사, 2005; 송혁기, 『曹兢變의 金澤榮

터 京華世界에서 文名을 떨쳤고 개성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중앙 관계에 진입하여 광무년간 우리나라 역사를 편수하였으며 을사늑약 직전 중국에 망명, 강남 지방에서 중국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문필 활동을 계속하였다. 김택영의 역사적 삶이 이처럼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김택영을 향한 연구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지역 문인 김택영보다는 조선 문인 김택영에 경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간 조선 후기 또는 근대초기 문학사, 사상사, 사학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개성이라는 지역에 집중해서 김택영에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 문인의 한 사람으로 김택영에 대한 지역 지성사적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지역 단위를 넘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김택영의 행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성 지역에 대한 지성사적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뚜렷한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 곳이고 조선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여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²⁾ 일제식민지시기에도 일본자본과 대항하는 민족자본의 정체성이

諸家文評 비판과 그 비평사적 의의』, 『東洋漢文學研究』22, 동양한문학회, 2006 ; 김승룡, 「金澤榮의 松都 복원 작업의 의미」, 『고전문학연구』29, 월인, 2006 ; 최영욱, 「金澤榮과 曾國藩의 문장론 비교」, 『한국고전연구』20, 한국고전연구회, 2009 ; 최영욱, 「滄江 金澤榮의 중국망명과 출판사업 의식」, 『韓國思想史學』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 광미선, 『김택영의 중국 망명시기 문학 활동 연구』, 보고사, 2013. 역사학 분야의 연구로는 다음 논저들이 있다. (崔惠珠, 「滄江 金澤榮 研究」, 『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1981 ; 유봉화, 「朝鮮後期 開城知識人の 동향과 北學思想 수용」, 『奎章閣』1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 崔惠珠, 「滄江 金澤榮의 韓國史論」, 한울, 1996 ; 崔惠珠, 「1920년대 金澤榮의 중국에서의 한국사 서술」, 『史學研究』53, 한국사학회, 1997 ; 이윤식, 「김택영의 『신고려사』에 대한 일고찰」, 『啓明史學』11, 계명사학회, 2000 ; 이경주, 「金澤榮의 『新高麗史』에 대한 一考」, 『人文論叢』20, 울산대학교, 2001. 그 밖에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가 있다. 조남호, 「金澤榮의 天符經 주석 연구」, 『東西哲學研究』45, 한국동서철학회, 2007 ; 최석기, 「滄江 金澤榮의 『大學』 해석」, 『漢文學報』22, 우리문화학회, 2001.

2)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54, 역사비평사, 2001.

부여되어 개성의 근대적 지역성이 형성되고 있었다.³⁾ 이와 같은 개성의 지역성을 고려할 때 개성 지역은 지성사적으로 특별한 성격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 조선시대 ‘開京學’의 실학 연계성을 논하거나,⁴⁾ 花潭學의 절충적·개방적 학풍을 논하거나,⁵⁾ 개성 지식인의 北學 수용을 논했던⁶⁾ 여러 사상사적 논의들은 개성의 지역성을 적절히 포착한 성과였다고 하겠다. 특히 崔漢綺와 金澤榮을 중심으로 개성지식인의 북학사상을 논구한 성과는 18·19세기 낙론의 유입과 북학의 수용이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개성 지식인의 전반적인 동향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선후기 개성 지성사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해 이와 같은 논의들은 지역적인 시각에서 개성에 접근했다기보다는 중앙적인 시각에서 개성에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실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개성, 화담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개성, 낙론이나 북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개성을 특징적으로 제시한 것이 개성 그 자체에 집중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성 지식인 연구는 대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 松都學脈의 완전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⁷⁾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그러면 지역적 레벨에서 개성 지성사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이 필요할까?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 개성 문인들의 집합적인 존재 양태와 상호 결집 양상을 포착하는

3) 정중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4) 원유한·박재희, 『‘開京學’의 成立 및 實學과 連繫』, 『실학사상연구』21, 무악실학회, 2001.

5) 申炳周, 『화담학과 근기사립의 사상』, 『국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2005.

6) 유봉학, 『朝鮮後期 開城知識人의 동향과 北學思想 수용』, 『奎章閣』16, 1994.

7) 金承龍, 『尤雅堂 王性淳의 現實認識과 文學에 대하여』, 『漢文學報』7, 우리한문학회, 2002.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볼 때 김택영은 개성 문인들의 집합적인 존재 양태와 상호 결집 양상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열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택영은 1881년 개성의 대유 金憲基(堯泉, 1774~1842)의 『初菴集』을 편간한 이래 끊임 없이 지역 사회의 역사문화 전통과 관계 있는 문헌 편간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김택영과 연결된 개성 문인들이 상당수 결집하여 이를 돕고 있어서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을 통하여 김택영 당대의 개성의 주요 문인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개성 문인들은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한 뒤에도 끊임없이 김택영의 문헌 편간을 도왔으며 김택영이 별세한 뒤에도 1934년 김택영을 추모하는 기념 책자 『滄江先生實紀』를 제작하여 다시 한 번 그 결집력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1881년부터 1934년까지 반 세기 이상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집합적인 존재 양태를 보여 주었는데 이 글에서 개성 지역 지성사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더구나 이들은 19세기 후반 개성 문단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제적 재력을 배경으로 문학과 실업을 겸하거나 개성 성균관을 거점으로 개성 유림의 중심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김택영 생전 문헌 편간 사업과 김택영 사후 기념 책자 제작 사업을 통하여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한국 근대 개성 문인들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여 19·20세기 개성 지역 지성사 이해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록 개성 지역에 국한된 연구이지만 근대전환기 도시 지역 유교 지식인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8) 이와 관련하여 김택영의 문집 이본을 고찰한 서지적인 연구가 주목된다. 崔煥玉, 『金澤榮文集의 刊行經緯와 異本考』,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 조선 말기 金澤榮의 문헌 편간과 개성 문인

조선 말기 金澤榮(滄江, 1850~1927)은 개성 지역의 저명한 문인이다. 그는 李建昌, 黃玟과 더불어 전국적인 詩名을 얻었던 문인이자 투철한 전통의식으로 개성의 유학 전통과 조선의 문학 전통을 창조한 지식인이었다. 또한 대한제국에 참여하여 학부에서 봉직하며 역사 교과서를 편수한 관료이자 중국에 망명한 뒤 조선의 한문학 문헌들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출판하여 조선 문학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한 망명객이었다. 김택영이 평생에 걸쳐 몰두했던 개성 유학과 조선 문학의 현창 작업은 김택영 개인의 열정과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조선 문인들, 특히 개성 문인들의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개성 문인들은 김택영의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개성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였다.

김택영과 교류했던 이른 시기의 개성 문인들은 黃花社 멤버들이었다. 1875년 김택영은 朴榮紀(호는 堯山), 朴寅澈(호는 曉山), 朴載鉉(栢堂, 1852~1911), 崔中建(希堂, 1853~1933)과 더불어 자신이 사는 仙岩의 書室에 모여 국화에 관한 시를 짓고 모임의 이름을 황화사라고 정하였다.⁹⁾ 그는 1878년 李命喆(晴農, 1835~1907), 王性協(瀟齋, 1850~?), 朴南澈(石堂, 1850~1918), 朴載鉉 등과 함께 어울려 시를 지었고,¹⁰⁾ 1879년 懷人體를 써서 李命喆, 朴榮紀, 朴寅澈, 朴南澈, 王性協, 崔中建, 韓時赫 등을 그리며 시를 지었는데,¹¹⁾ 대략 이들이 황화사의 전체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황화사는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초기 개성 문인들의 거점이 되는

9)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1 「十月一日仙岩書室同朴堯山-榮紀-朴曉山-寅澈-朴栢堂-載鉉-崔希堂-中建賦菊遂命曰黃花社」

10) 金澤榮, 『合刊韶護堂集補遺』 권1 「李晴農承旨-命喆-王瀟齋校理-性協-朴栢堂-朴石堂見過問遊同賦」

11)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2 「分韻得寒字賦懷人體」

詩社였다.

19세기 개성 유학사의 관점에서 황화사 멤버들은 개성 유학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19세기 개성 유학의 주요 인물들, 즉 경학으로 金憲基(堯泉, 1774~1842), 姜文豹(龍山, 1822~1881), 梁在淳(眞山, 1833~1909), 李得英(警拙, 1811~1887), 그리고 문학으로 韓在濂(心遠子, 1775~1818), 朴文逵(天游, 1805~1888)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개성 유학은 대개 경학 분야에서 金憲基와 같은 대유가 출현하여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에도 姜文豹, 梁在淳, 李得英 등이 출현하여 경학 전통이 이어졌다. 동시에 문학 분야에서도 韓錫鎬·韓在濂 부자가 출현하여 명성을 떨친 후 한재림의 문인 李祖憲(蓮士, 1796~?)이 성세를 이어갔고 다시 朴文逵가 문명을 크게 떨쳤다.¹²⁾ 따라서 황화사 문인들이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19세기 개성 유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黃花社 문인들은 직접 이들에게 경학과 문학을 배우거나 또는 이들의 시문 간행을 주도하면서 조선 말기 개성 문단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박재현, 최중건, 한시혁은 김택영과 협력하여 1881년 김헌기의 문집 『初菴集』을 교정하고 이를 공간하였다.¹³⁾ 19세기 개성의 최고 유학자의 문집을 황화사 문인들이 교정하여 공간했다는 것은 이들이 김헌기를 계승하는 후학임을 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헌기 이후 개성의 經儒로 말한다면 박재현은 양재순의 문하에 출입한 듯하고 박재현의 처소에서 양재순을 만난 김택영은 후일 양재순의 묘갈문을 지었다.¹⁴⁾ 김택영은

12)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권2 「文詞傳」 및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文詞傳」 참조: 李得英의 경우 『崧陽耆舊傳』이나 『重編韓代崧陽耆舊傳』에 입전되어 있지는 않으며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3) 金憲基, 『初菴集』 「年譜」 辛巳條;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2 「今春與柏堂希堂容齋諸友共刊金堯泉先生-憲基-文集至是而成感賦」

14)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5 「梁眞山處士墓碣銘」

양재순을 만나기 앞서 고종대 개성의 대표적인 유학자 강문표를 만나 19세기 개성의 대유 김헌기의 학문과 접할 수 있었다.¹⁵⁾ 박인철-박남철 형제는 각각 이득영의 塾弟子와 門生으로 후일 이득영의 문집 『警拙集』을 출간할 때 각각 서문과 발문을 지었으며 박재현 역시 『경졸집』의 발문을 지었다.¹⁶⁾

한편 한시혁은 한재림의 증손으로 한석호 및 한재림 형제의 문집 출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박재현과 최중건은 김택영과 협력하여 역시 이들 문집을 수합하고 교정하여 1882년 『西原家稿』를 간행하였다.¹⁷⁾ 또한 박인철-박남철 형제는 박문규의 문인이었는데 박인철은 직접 박문규가 自編한 『天游山房詩稿』를 받아 이를 등사하였으며, 박남철은 1917년 崔文鉉이 開城文藝社에서 발간한 박문규의 『天游集古』에 서문을 지었다.¹⁸⁾ 이처럼 김택영을 필두로 하는 황화사 문인들은 경학과 문학 분야에서 19세기 개성 유학의 핵심적 인물들인 김헌기, 양재순, 이득영, 한재림, 박문규의 학문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의 시문 출간을 주도하며 고종대 개성 문단의 중심에 입지하였다.

개성 문인들은 김택영이 다양한 문헌 편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며 그 결집력을 높였다. 김택영은 고종대에 『金氏史補』, 『麗季忠義逸士傳』, 『崧陽耆舊傳』, 『崧陽耆舊詩集』, 『燕巖集』, 『燕巖續集』 등 다양한 문헌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상당수 개성 문인들이 이 작업에 참여해 김택영을 도왔던 것이다. 『김씨사보』는 고려말 김택영의 선조 金勳의 기이한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김택영 당대의 문인들이 지은 시문을 수집한 책자인데,¹⁹⁾ 좁게 보면 김택영의 가문을 위한 책자이지만 넓게 보면 고려말 개성

15) 上同

16) 李得英, 『警拙集』 「序」 (朴寅澈); 「跋」 (朴載鉉, 朴南澈)

17) 『西原家稿』 「跋」 (韓東赫)

18) 朴文達, 『天游集古』 「題辭」 (朴南澈)

19) 김훈의 기이한 사적이란 김훈이 만수산에 은둔하여 꽃을 심었는데 오색의 매화가 사철에 꽃피었던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鄭夢周가 흘린 선죽교의 피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의 역사문화에 관계된 책자였다. 『여계충의일사전』은 고려말 난세에 처하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 세상을 은둔한 인물들의 역사 전기, 『승양기구전』은 조선시대 개성 지역 명인들의 역사 전기인데 김택영은 1896년 이들을 합하여 『승양기구전』으로 간행하였다. 『승양기구시집』은 김택영이 조선시대 개성인의 명시를 정선한 지역 문학 선집으로 본디 지역 사회에 전해지던 『松京風雅』를 증보한 것이고, 『연암집』과 『연암속집』은 조선의 문호 박지원의 주요 시문을 최초로 공간한 문학 선집으로 金澤榮, 金敎獻 등이 중심이 되어 박지원의 문장과 복학을 추구하는 일련의 문인들이 광무년간 간행한 것이다. 이 문헌들은 대체로 개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계된 책자이거나 박지원과 같이 조선의 대표적인 문학가에 관계된 책자였기 때문에 개성 문인들은 상당한 열정을 안고 시문의 창작, 수집, 교정, 비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택영의 문헌 편찬과 개성 문인들의 참여

연도	문헌	김택영	개성 문인	참여
1884	金氏史補	序, 歌, 辨	金信榮 · 朴文達 · 李命喆 · 李珪 · 白膺絢 · 尹鎮佑 · 李榮坤 · 崔中建 · 吳容默	詩
			具重協	賦
1896	麗季忠義逸士傳	撰	金信榮 · 王性淳	校
1896	崧陽耆舊傳	撰	朴載鉉 · 金重熙 · 張漢炯 · 秦永濂 · 林圭永 · 韓承履	校
			金信榮	跋
1900	燕巖集	校編		
1901	燕巖續集	校編	李鍾泰 · 秦永濂 · 林圭永	燕巖

않은 사실, 그리고 趙狷의 유언을 어기고 그의 자손이 조건의 묘비에 조선왕조에서 하사한 벼슬을 기입하자 묘비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麗季三絶이라 일컬었다. (『金氏史補』 「高麗金詹事本傳」) 『김씨사보』의 원고 수집은 김택영의 서문이 작성된 1881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李應辰의 서문이 작성된 1883년까지는 이 책의 서발이 모두 확보되었으며, 실제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이 책에 실린 『先蹟辨』이 작성된 1884년 7월 이후로 보인다.

				集評
1910	崧陽耆舊詩集	修輯	馬權	輯
			林光潤·張始淳	參訂
			王性淳	跋

(출전 : 『金氏史補』, 『崧陽耆舊傳』, 『燕巖集』, 『燕巖續集』, 『崧陽耆舊詩集』)

위 표에서 보듯이 개성 문인들은 『김씨사보』에 들어갈 詩와 賦를 짓거나 『여계층의일사전』과 『송양기구전』을 교정하거나 『연암속집』에 들어갈 評을 짓거나 『송양기구시집』에 들어갈 시를 수집, 참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연령 집단에 따라 김택영의 선진 그룹, 김택영의 동료 그룹, 김택영의 후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김택영의 선진 그룹에 속하는 개성 문인들이다. 『김씨사보』에 들어갈 시를 지었던 인물들로 朴文達(天游, 1805~1888), 白膺絢(愚南, 1808~?), 李珪(蓮史, 1824~?), 尹鎮佑(靑史, 1843~?) 등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개성 문단에서 저명한 시인들로 『송양기구시집』에 이들의 시가 선입되어 전한다. 특히 박문규, 백응현, 윤진우와 관련하여 개성 지역에서 이들의 문학사적 위상은 『송양기구전』에 잘 나타나 있다. 『송양기구전』 「文詞傳」은 개성 문학사의 대미를 朴文達로 장식하면서 박문규의 문학적 성취를 소개하였고 박문규와 동시기에 박문규에 버금간 개성의 시인으로 白膺絢, 白岐鎮, 全弘瑄 등을 거명하였다.²⁰⁾ 또한 박문규의 후진으로 尹鎮佑, 金載熙, 崔中建, 徐昌東 등을 언급하였는데, 후일 개정된 『重編輯代崧陽耆舊傳』에 이르면 박문규의 문인으로 尹鎮佑를 거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²¹⁾ 이처럼 박문규, 백응현, 윤진우는 『송양기구시집』과 『송양기구전』에서 모두 거명되는 개성 문학사의 주요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김택영의 『김씨사보』 편찬을 돕는 취지에서 김훈의 행적에 관한 시를

2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 <朴文達>

21) 金澤榮, 『重編輯代崧陽耆舊傳』 권1 「文詞」 <朴文達>

지어준 것은 동향 후진 김택영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당대 개성 문단의 최고 시인인 박문규가 1876년 김택영에게 시를 보내 ‘聽君談詩吾喪我, 上清樓閣神仙坐’라고 칭찬했던 것은²²⁾ 개성 사회에서 김택영의 문명이 크게 오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²³⁾ 김택영은 동향에서 박문규를知己로 생각하고 있었고,²⁴⁾ 박문규와 더불어 백응현, 윤진우, 이명철 등과 함께 교류하며 시를 지었다.²⁵⁾

다음으로 김택영의 동료 그룹에 속하는 개성 문인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黃花社 문인들이 계속해서 김택영의 문헌 편찬을 도왔음이 확인된다. 崔中建과 朴載鉉이 김택영과 협심하여 金憲基의 『初菴集』과 韓錫鎬 및 韓在濂 형제의 『西原家稿』를 교정하고 간행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이들은 계속해서 『김씨사보』와 『숭양기구전』의 편찬을 도왔다. 崔中建은 김택영을 위해 『김씨사보』에 수록될 시를 지었고, 朴載鉉 역시 김택영이 찬술한 『숭양기구전』을 교정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역시 『김씨사보』에 수록될 詩를 지은 李命喆은 김택영과 사둔 관계로 황화사 멤버에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김씨사보』에 수록될 賦를 지은 具重協(玉山, 1854~?)은 김택영이 ‘吾友玉山子’라고 부른 김택영의 초기 친구²⁶⁾로 김택영은 구중협의 부친의 회갑을 축수하는 글을 지었다.²⁷⁾ 그는 『숭양기구시집』에 시가 선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사회에서 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1 「次韻謝朴天遊霽鴻-文達-先生贈詩」

23) 김택영과 사둔 관계인 李命喆(晴農, 1835~1907)은 박문규가 김택영의 시를 품평한 말을 인용하여 김택영의 시를 칭찬하기까지 하였다.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2 「嘉善大夫侍從院卿李公墓碣銘」)

24)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4 「書周晉琦詩集後」

25) 朴文達, 『天游詩集』 「贈金于霖-澤榮」, 121면;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2 「同朴天游白愚南洪小隱-圭燮-三丈及金菊潭-興說-尹靑史-鎮佑-遊廣文岩李氏池亭限韻」

26)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1 「次韻酬具玉山重協」

27)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 「具錦坡先生六十一歲壽序」

다음으로 김택영의 후진 그룹에 속하는 개성 문인들이다. 특히 김택영의 대표적인 시 제자인 王性淳(敬菴, 1869~1923)과 林圭永(荊山, 1869~1908)이 김택영의 문헌 편찬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이 주목된다. 왕성순은 김택영이 편찬한 『여계충의일사전』을 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택영의 뜻을 받들어 『송양기구시집』을 완성시킨 김택영의 충실한 문인이었다. 임규영은 김택영이 편찬한 『송양기구전』을 교정하였고 다시 김택영의 『연암집』 간행 사업에 협력하여 『연암속집』에 『연암집평』을 수록한 문인이었다. 이들은 김택영의 제자로서 김택영을 매우 존모하였고, 그와 같은 존모의 마음으로 왕성순은 김택영이 편찬한 『여한구가문초』에 김택영의 문장을 선입한 『麗韓十家文鈔』를 편찬하였고, 임규영은 김택영의 초기 시를 선별하여 여기에 이견창의 시평까지 합한 『雲山韶護堂詩選』을 편찬하였다.²⁸⁾ 張始淳 역시 김택영의 문인으로 黃花社 문인들을 도와 김헌기의 『초암집』을 교정한 바 있었는데²⁹⁾ 다시 『송양기구시집』의 參訂을 담당하는 수고를 기울였다. 韓承履(1875~?)는 김택영의 문생으로 문장과 算學에 재주가 있어서 탁지부대신 魚允中의 추천으로 약관의 나이에 탁지부주사가 된 인물인데,³⁰⁾ 『송양기구전』의 교정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金信榮(1851~?)은 김택영의 삼종제로 『여계충의일사전』을 교정하고 『송양기구전』의 발문을 지었다. 김택영이 1888년 이미 서문까지 갖추어 완성한 『송양기구전』을 1896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풍기군수로 재직한 김신영이 간행 비용을 송금한 덕택이었다.³¹⁾

28) 『운산소호당시선』은 임규영이 선별한 김택영의 시선으로 초기 김택영 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김택영 시에 대한 이견창의 시평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 가치가 높다. (김덕수, 『寧齋 李建昌의 漢詩 批評 研究 -『雲山韶護堂詩選』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17, 한국한시학회, 2009.)

29) 金憲基, 『初菴集』 『年譜』 辛巳條

30)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韓生-承履-新任度支部主事有贈』

31)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3 『重編輯代崧陽耆舊傳序』

이상으로 김택영의 문헌 편찬 사업에 협력한 주요 개성 문인들을 일별해 보았다. 이들은 연령 집단에 따라 김택영의 선진 그룹, 동료 그룹, 후진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선진 그룹의 경우 『송양기구전』과 『송양기구시집』에서 거론되는 19세기 개성 문학사의 중요한 인물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은 선진 그룹은 물론 동료 그룹과 후진 그룹에 속하는 개성 문인들 중에서도 19세기 개성 문학사의 주요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우수한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개성의 자연 경관과 문화 유적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는데, 20세기 들어와 간행된 『中京誌』와 『開城誌』의 「題詠」에는 이들 김택영의 선진, 동료, 후진 그룹에 속하는 문인들의 시가 실려 있어 주목된다.³²⁾ 『중경지』와 『개성지』 「제영」에 실린 작품 중에서 박문규 이하 19세기 개성 문인들의 작품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中京誌』와 『開城誌』 「題詠」에 실린 19세기 개성 문인들의 작품

인물	작품	출전	崧陽耆舊詩集
朴文達	高麗太祖陵/ 崧陽書院/ 花谷書院/ 南門樓/ 滿月臺	中京誌/開城誌	○
白膺絢	九齋	中京誌/開城誌	○
白岐鎭	玉龍潭	中京誌/開城誌	○
李莘田	登紫巖	中京誌/開城誌	○
尹鎭佑	法化山	中京誌/開城誌	○
朴元珪	礪峴鎭	中京誌/開城誌	○
金澤榮	扶山洞/ 天磨山/ 萬景臺/ 文殊峯/ 朴淵/ 東杜門洞/ 禮成江/ 花谷書院/ 滿月臺	中京誌/開城誌	
朴南澈	朴淵	開城誌	○

32) 조선시대 金堉의 『松都誌』 이래 여러 차례 개성의 읍지들이 발간되었으나 19세기 들어와 개성의 행정 구역 변동을 반영하여 새롭게 金履載의 『中京誌』가 출현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증보되었다가 1910년 개성 군수 朴宇鉉에 의해 『중경지』의 최종적인 증보가 완료되었다. 『개성지』는 1934년 개성 문인 林鳳植이 『중경지』를 증감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취한 『중경지』와 『개성지』는 1910년 완성된 『중경지』와 1934년 완성된 『개성지』이다.

朴載鉉	滿月臺	中京誌/開城誌	
王性淳	滿月臺/ 泣碑/ 登繁巖	開城誌	
林圭永	彩霞洞/ 玉龍潭, 泰安洞/ 神岩	開城誌	

(출전 : 『中京誌』 권7 『題詠』 ; 『開城誌』 권3 『題詠』)

위 표에서 보듯 『중경지』와 『개성지』의 「제영」에 작품이 수록된 19세기 개성 문인들은 김택영을 제외하면 모두 10인이다. 이들을 위에서 김택영의 문헌 편찬을 도운 개성 문인들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김택영의 선진 그룹, 동료 그룹, 후진 그룹으로 나눈다면, 朴文逵와 白膺絢과 尹鎮佑 3인은 모두 김택영의 『김씨사보』를 위해 시를 지었던 김택영의 선진 그룹에 속하고, 朴南澈과 朴載鉉 2인은 김택영의 초기 문인 교유 그룹인 황화사의 멤버로 김택영의 동료 그룹에 속하고, 王性淳과 林圭永 2인은 김택영의 대표적인 시 제자로 김택영의 문헌 편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김택영의 시문 선집까지 만들었던 김택영의 후진 그룹에 속한다. 이를 통해 김택영이 결성한 황화사에 참여했거나 김택영의 문헌 편찬 사업에 협력한 주요 개성 문인들이 선진 그룹, 동료 그룹, 후진 그룹을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개성 지역 사회에서 빼어난 문학 작품을 산출했다고 인정 받는 19세기 핵심적인 개성 문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10인 중에서 白岐鎮(謙齋, 1814~?)과 李莘田(雨堂, 1836~?)과 朴元珪(蕙山, 1847~?) 3인은 비록 김택영의 문헌 편찬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백기진은 김택영으로부터 70세 축수를 받은 동향 선진이었고³³⁾ 박원규는 김택영 이전 19세기 개성 문학의 최고봉에 있었던 박문규의 죽손으로 김택영과 함께 문을 논하던 ‘隣友’였으며,³⁴⁾ 이신전은 김택영과 서신으로 시를 주고 받은 문인이었으니³⁵⁾ 이들 3인도 역시 김택영과 교유관계

33)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 『白星菴先生七十壽序』

34)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移居古德村留別隣友朴蕙山-元珪』

35)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奉和李雨堂-莘田-丈人』 : 李莘田은 1895년 상해를 거쳐

가 확인되는 개성 문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10인 중에서 박재현과 왕성순과 임규영 3인을 제외한 7인은 모두 『송양기구시집』에도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들이 『중경지』와 『개성지』 같은 지역 읍지의 『제영』에도 작품이 수록되고, 『송양기구시집』 같은 지역 문학 선집에도 작품이 수록된 것은 이들이 19세기 개성의 ‘耆舊’로서 가장 빼어난 문인이라는 지역 공론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국망 전후 『滄江稿』·『崧陽耆舊詩集』의 간행과 개성문인

앞 장에서 조선말기 김택영과 교유한 개성 문인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김택영이 결성한 黃花社에 참여한 문인들, 김택영이 편찬한 일련의 작품들, 곧 『김씨사보』, 『여계충의일사전』, 『송양기구전』, 『연암집』, 『연암속집』, 『송양기구시집』에 관계한 문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19세기 개성 문단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작품의 창작, 수집, 교정, 비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김택영의 문헌 편찬을 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개성 문인들 중에는 김택영이 편찬한 문헌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간행 비용을 분담하여 김택영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성 신교육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儒林大家’의 명망이 있었던³⁶⁾ 崔文鉉(韋史, 1872~1919)은 김택영이 1900년 『燕巖集』을 간행할 때 성금을 냈던 관계로 『燕巖集』에 첨부된 舍金記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최문현은 김택영과 함께 대한제국기 중앙에서 벼슬했던 개성인으

뜻, 楚 일대를 유람하고 돌아와 『南遊吟稿』라는 시집을 만들었다. 이 시집에 김택영의 제자 왕성순이 서문을 짓고 있어 이신전과 김택영의 또다른 연결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19세기 개성 문인들 중에서 이신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중국 강남을 건문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王性淳, 『尤雅堂稿』 권3 『南遊吟稿序』)

36)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5일, 잡보 『兩氏熱心』

로 김택영을 前輩로 추종했으며 김택영의 시제자 林圭永의 벗으로 스스로도 시집을 만든 시인이었다.³⁸⁾ 이와 같이 김택영의 문헌 출간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인물들의 전체 규모는 1910년 간행된 『송양기구시집』과 1912년 간행된 『창강고』에 수록된 『同刊錄』의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양기구시집』은 김택영이 편찬하여 김택영의 중국 망명 후 김택영의 문인 왕성순이 중심이 되어 완성한 조선시대 개성 지역 문인들의 詩選이고, 『창강고』는 김택영의 문인 김근용이 중심이 되어 출간된 김택영의 첫 번째 개인 문집인데, 양자 모두 간행 당시 개성 문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간행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지역 문화 현창 사업에 기여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창강고』 간행을 지원한 개성 문인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滄江稿』 간행 비용 분담 인물 일람

성명	자	관직	성명	자	관직
白南軾	希文	監役	崔基鼎	用九	郡守
金壽榮	仁汝	縣監	金謹鏞	允行	
孫錫權	宜卿	主簿	韓永錫	聖祚	司諫
金重禧	厚卿		王性淳	原初	掌令
曹秉元	舜八	教官	孔聖學	允悅	參奉
朴守林	茂原				

(출전: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김택영이 자편한 『滄江稿』는 간행 당시 시집과 문집으로 나누어 각각 중국과 조선의 문인들로부터 간역 비용 지원을 받았다. 시집의 경우 중국의屠壽가 주도적으로 간행 비용을 주선하여 1911년 간행되었고 문집은 조선의 金謹鏞이 주도적으로 간행 비용을 주선하여 1912년 간행되었다. 김택영은 『창강고』 문편 간행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개성 문인들에게 감사하는 마

37) 朴趾源, 『燕巖集』 『燕巖集印役合金記』, 『續合金記』

38)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6 『韋史詩草跋』

음으로 회인시를 지었는데, 위 표에서 보듯 懷人詩의 대상은 白南軾부터 孔聖學까지 11인이다.³⁹⁾

『창강고』 간행 비용을 분담한 개성 문인들은 크게 김택영의 후진 그룹과 김택영의 동료 그룹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김택영의 후진 그룹으로 金謹鏞, 王性淳, 孔聖學과 김택영의 동료 그룹으로 孫錫權, 金重禧, 朴守林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金謹鏞(春臯, 1871~?)은 김택영으로부터 인생의 가르침을 받은 문인으로 김택영이 1890년 金允行에 대한 箴을 지어준 사실이 확인된다.⁴⁰⁾ 김택영은 자신의 문집이 金允行과 도기 덕분에 간행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이 마음을 金允行을 위한 회인시에 담아 ‘武進屠敬山, 崧陽金允行, 後有好事者, 一傳宜與併’이라고 읊었다.⁴¹⁾ 金允行은 김택영의 저술 간행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택영은 1915년 『韓國歷代小史』 간행 당시에도 자금이 부족하자 ‘同郡少友’ 金允行에게 부탁해 송금을 받아 간행했다.⁴²⁾ 1925년 생애 말년의 김택영은 金允行의 종형 金民鏞의 묘갈명을 지었다.⁴³⁾

金允行과 더불어 『창강고』 간행을 도운 王性淳은 임규영과 함께 김택영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⁴⁴⁾ 왕성순이 김택영의 『여계충의일사전』과 『송양 기구시집』 편찬을 도왔음은 앞에서 언급했는데 실로 그는 김택영의 애제자

39) 회인시의 11인과 달리 실제 『창강고』 문편에 실려 있는 「同刊記」에는 이들 11인에서 金謹鏞과 王性淳이 빠진 9인이 기록되어 있다. (최영옥, 『滄江 金澤榮의 중국 망명과 출판사업 의식』, 『한국사상사학』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201면 각주 53 참조.)

40)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6 「金謹鏞字允行箴」.

41)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42)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6 「自題韓國歷代小史後」.

43) 1920년 崔基鉉이 간행한 『善士列傳』에 의하면 金允行은 재력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핀 개성의 善士 33인의 한 사람으로 거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崔基鉉, 『善士列傳』, 日新堂, 1920, ‘朴亨緒’條.)

44) 왕성순의 문학에 대해서는 金승룡, 「尤雅堂 王性淳의 現實認識과 文學에 대하여」, 『한문학보』7, 우리한문학회, 2002 참조.

였다. 김택영은 1921년 왕성순의 세 아들 王翰宗, 王翰承, 王翰英의 字說을 지었고⁴⁵⁾ 왕성순이 별세하자 직접 小傳과 墓誌銘을 지었는데⁴⁶⁾ 왕성순을 천하에 둘도 없는 학문적 知己로 생각한다고 고백하였다.⁴⁷⁾ 왕성순은 김택영의 문하에서 林圭永과 더불어 문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종대 개성 경학의 일인자 姜文豹의 수제자인 秦尙友, 崔性佐 등과 강학하며 경학 연구에도 매진한 개성 유림이었다. 그는 문학과 경학을 겸비한 보기 드문 능력을 발휘하여⁴⁸⁾ 『麗韓十家文鈔』와 『朝鮮五賢文鈔』를 편찬, 조선의 문학 전통과 경학 전통을 바라보는 개성인의 관점을 유감없이 표출하였다.⁴⁹⁾

왕성순은 林圭永과 각별한 사이였고,⁵⁰⁾ 1905년 김택영의 黃花社 멤버인 朴載鉉 및 임규영, 김근용 등과 더불어 평양 유람을 다녀오기도 하였다.⁵¹⁾ 김택영은 왕성순과 김근용을 무척 아꼈고, 그랬기에 그는 1912년 자신의 문

45)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7 「王原初三子字說」

46)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2 「王原初小傳」;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2 「故韓弘文館侍講王君墓誌銘」

47)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2 「故韓弘文館侍講王君墓誌銘」 「抑吾所以痛者, 以天下之知我者莫原初若也. 然苟問其所以知者, 則在乎其學. 然則吾焉能不忍痛以叙, 使後世知原初之學也哉」

48) 김택영은 왕성순의 경학과 문학에 대해 ‘吾鄉百年文字契, 前有存齋後敬菴’이라 하여 왕성순의 경학 연구를 극찬하였고 ‘三十六年論文地, 往復不下千琅函’이라 하여 왕성순과의 오랜 문학 교류를 추억하였다.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1 「悼王原初」)

49) 『여한십가문초』는 金富軾에서 시작하여 金澤榮에 이르기까지 고려-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 10인의 문장을 선별한 책이고, 『조선오현문초』는 조선의 다섯 유학자 徐敬德-李滉-李珣-宋時烈-金憲基의 문자를 선별한 책이다. 『여한십가문초』의 첫번째 문장가와 마지막 문장가는 金富軾과 金澤榮이고, 『조선오현문초』의 첫번째 유학자와 마지막 유학자는 徐敬德과 金憲基인데, 이처럼 두 책 모두 ‘十家’ 또는 ‘五賢’의 시작과 종결을 고려의 개경 또는 조선의 개성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구성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조선 사회의 문통과 도통의 시작과 끝을 모두 개성인에서 구하는 개성인 王性淳의 지역 의식의 발로였으며 그것은 왕성순과 학문적 동지 의식을 나누었던 金澤榮의 지역의식이기도 하였다.

50) 王性淳, 『尤雅堂稿』 권1 「得林有瑞書」, 「喫蕨粥有懷有瑞」, 「崧山夏夜有別有瑞」

51) 王性淳, 『尤雅堂稿』 권1 「乙巳四月二十四日同朴栢堂先生林荊山參奉金春阜參書遊平壤至黃州作」

인 李箕紹(省菴, 1874~1940)에게 보낸 『噫噫篇』에서 한국의 시사를 탄식하고 중국에 아직 先王의 忠厚한 정치가 남아 있으니 李箕紹, 金謹鏞, 王性淳 등이 중국에 와서 자신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비쳤다.⁵²⁾ 이기소 역시 김택영의 주요 문인으로 김택영으로부터 省菴이라는 自號의 기문을 선사받았다.⁵³⁾ 비록 『창강고』 간행을 돕지는 못했지만, 후일 김택영 사후 개성 문인들이 『滄江先生實記』를 편찬할 때 개성 문인들을 대표하여 김택영의 『遺事』를 지었다.⁵⁴⁾

김근용과 더불어 『창강고』 간행을 도운 孔聖學(春圃, 1879~1957)도 김근용이 김택영으로부터 친근하게 들었던 ‘同郡少友’라는 호칭을 똑같이 들었던 개성 문인이다.⁵⁵⁾ 공성학은 孫鳳祥과 더불어 일제식민지시기 개성에서 蓼業을 경영한 개성의 대표적인 실업가인 동시에 개성 成均館 司成과 개성 杜門洞書院 院長을 역임하여 개성 유교계의 중추적인 유림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⁵⁶⁾ 그는 김택영 문하에서 직접 문학을 수학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김택영의 글을 읽으며 항상 김택영을 존모해 왔다.⁵⁷⁾ 김택영의 문인 왕성순이 『여한십가문초』를 편찬하여 조선 文統의 마지막 종착지로써 김택영의 문학사적 위상을 천명했을 때, 공성학은 李箕紹와 더불어 이 책 전편의 參訂을 담당하였다.⁵⁸⁾ 김택영은 1912년 懷人詩를 지어 공성학이 공자의 후손으로 고문을 좋아함을 칭찬하였고,⁵⁹⁾ 1923년 공성학이 孫鳳

52)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噫噫篇寄李文先-箕紹』

53)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5 『省菴記』

54) 『滄江先生實記』 권2 『遺事』(李箕紹) : 이기소는 개성 문인들 중에서 자신이 김택영을 오랫동안 섬겨서 김택영의 일을 가장 자세히 알기 때문에 유사 편찬을 위촉받았다고 밝혔다.

55)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2 『羅氏雙壽詩卷序』

56) 공성학에 대해서는, 이은주,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공성학의 간행사업 연구』,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2012 참조

57) 『滄江先生實記』 권2 『書金滄江先生實記後』(孔聖學)

58) 『麗韓十家文抄』

祥, 金元培, 朴鳳鎮 등과 더불어 남통의 처소를 방문하자 함께 시를 수창 하였으며,⁶⁰⁾ 1924년 공성학이 영남 지방을 유람하고 지은 『南遊錄』에 題文을 지었다.⁶¹⁾

이상으로 김근용, 왕성순, 공성학 등이 김택영의 후진으로 『창강고』 간역을 도왔다면, 孫錫權, 金重禧, 朴守林 등은 김택영의 벗으로 『창강고』 간역을 도운 인물들이다. 孫錫權은 김택영이 동자 시절에 한마을에서 놀던 죽마고우로 풍모가 篤厚하였다.⁶²⁾ 손석권의 풍모와 관련하여 기근이 들어 화적떼가 손석권의 집에 침범했으나 손석권의 타이름에 감동받아 순순히 물러갔다는 일화가 전한다.⁶³⁾ 金重禧 역시 김택영이 함께 會飲하던 오랜 벗으로,⁶⁴⁾ 김택영은 1912년 회인사에서 김중희가 마음이 맞는 친구이며 중국에 망명한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혔다.⁶⁵⁾ 朴守林(竹下, ?~1946) 역시 김택영의 오랜 벗으로, 김택영은 박수림의 平遠堂에 10년간 출입하며 개성의 많은 문사들과 교류하였고,⁶⁶⁾ 후일 ‘城東十年酒, 席上羅羣賢’이라는 시구로 이를 회고하였다.⁶⁷⁾ 朴載鉉의 난초 그림과 김택영의 題詩가 어우러진 박수림의 병풍은 고종대 개성 지역 黃花社의 작은 풍류의 하나였다.⁶⁸⁾ 김

59)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60)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1 『孫韶山-鳳祥-老人偕孔春圃-聖學-金海石-元培-朴-鳳鎮-三君訪余叙舊因贈一律作此奉和兼屬三君』; 『酬孔春圃贈詩』; 『用前韻再贈春圃』

61)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1 『題孔春圃南遊錄』

62)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63) 崔基鉉, 『中京善士列傳』, 日新堂, 1920, ‘孫錫權’條.

64)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金潛軒厚卿-重禧-書室會飲用燈字韻』

65)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66)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贈別朴正郎茂原-守林-兼示朴柏堂林-龍基-諸友』

67)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택영은 1921년 박수림이 김택영의 제자 張始淳을 통해 새로 이긴한 평원당의 기문을 요청하자 자신에 대한 박수림의 우정을 ‘忠信篤敬’이라 표현하였다.⁶⁹⁾ 그 밖에 金壽榮은 김택영의 三從弟이고,⁷⁰⁾ 韓永錫은 김택영이 晩堂이라는 호를 지어준 김택영의 외가 친척이며,⁷¹⁾ 白南軾은 요절한 아들 白世圭가 김택영에게 고문을 배운 인연이 있었다.⁷²⁾

〈표 4〉『崧陽耆舊詩集』 간행 비용 분담 인물 일람

성명	관직	성명	관직	성명	관직
金思默	京畿觀察使	金壽榮	永同縣監	鄭載東	成均館 進士
朴宇鉉	開城郡守	孫錫權	恭陵令	高漢周	成均館 進士
金麗煌	秘書監丞	朴遠炯	鐵山郡守	金宗煥	成均館 進士
金鎮九	侍從院 分侍從	朴守林	刑曹正郎	崔基肇	成均館 進士
韓廷鎬	中樞院 議官	金謹鏞	豐慶宮 叅書官	孔聖學	懿陵 參奉

(출전 : 『崧陽耆舊詩集』 『崧陽耆舊詩集同刊錄』)

다음으로 『崧陽耆舊詩集』의 간행을 도운 개성 문인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 金思默부터 孔聖學까지 15인이다. 이 책의 간행 경위는 金思默의 서문과 王性淳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송양기구시집』은 김택영이 수집하여 선별한 개성 문인들의 詩選으로 본디 개성에 전해지던 『松京風雅』를 저본으로 삼아 그것을 김택영의 안목으로 증감한 위에 다시 『송경풍아』 이후의 속집을 수집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택영은 속집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68)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贈別朴正郎茂原-守林-兼示朴柏堂林-龍基-諸友』

69)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6 『平遠堂記』

70)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71)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6 『晩堂銘』

72)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5 『金允行之刊吾文也諸君子傍助者亦多賦懷人體十一首以徧謝之』

결국 김택영의 뜻을 받들어 왕성순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의 서두에는 『崧陽耆舊詩集同刊錄』이 있는데, 이는 김택영의 요청으로 경기관찰사 金思默이 책의 간행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개성군수 朴宇鉉이 협조하여 개성의 ‘郡中諸彦’ 또는 ‘郡中諸紳士’와 상의하여 간행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행 경위를 분명히 하고자 동간록이 작성된 것이다.⁷³⁾

따라서 『송양기구시집』 간행을 지원한 개성 문인들은 『창강고』 간행을 지원한 개성 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김택영에 대한 개인적 친분과 더불어 관찰사와 군수의 문화행정에 대한 지역 유지의 협조적 차원에서 간행 비용을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창강고』의 간행 비용 마련이 일차적으로 金謹鏞을 중심으로 사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송양기구시집』은 개인의 저술이 아닌 지역 문인들의 저술이라는 성격이 중시되어 간행 비용 마련이 경기관찰사와 개성군수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同刊錄』에 기명된 이들 15인 중에서도 金壽榮, 孫錫權, 朴守林, 金謹鏞, 孔聖學 등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창강고』의 간행까지 부담한 인물들이고 이로 보아 상대적으로 김택영에 대한 친밀감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朴遠炯의 경우 김택영의 벗으로서 적극적으로 『송양기구시집』의 간행을 분담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형의 가문은 朴東輔(愼菴, 1845~1922)-朴遠炯(1862~?)-朴在善 3대에 걸쳐 김택영과 인연을 맺었다. 박동보는 무과 출신으로 산업을 경영하고 『小學』을 실천한 인물로 김택영은 그를 ‘武名儒實’이라 평하였다.⁷⁴⁾ 박원형은 鐵山郡守와 康翎郡守를 역임하며 치적을 남겼는데, 김택영은 박원형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관한 시를 지었고⁷⁵⁾ 박원형의 회갑을 축하하는 수서에

73) 『崧陽耆舊詩集』 『序』 (金思默) ; 『跋』 (王性淳)

74)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5 『朴愼菴墓誌銘』

서도 이를 언급하였다.⁷⁶⁾ 그러나 金麗煌, 金鎮九, 韓廷鎬, 鄭載東, 高漢周(1874~1912), 金宗煥(1874~?), 崔基肇 7인의 경우 김택영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⁷⁷⁾

여기서 『崧陽耆舊詩集』 간행 비용을 분담한 개성 문인들을 김택영과의 인간 관계와는 별도로 20세기 초 개성의 자산가 집단의 문화 사업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를 느낀다. 이를테면 金鎮九(雙溪, 1854~1928)의 경우 공성학의 부친 孔應奎와 더불어 대한제국기 蔘業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개성에서 최상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구의 경제력은 단적으로 1901년 작성된 『穆淸殿重建願助成冊』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목청전 중건 당시 8천 兩을 기부하여 1만 兩을 기부한 개성부윤을 제외하면 최다 기부금을 제공한 개성 사람의 하나였다.⁷⁸⁾ 『穆淸殿重建願助成冊』에는 김진구 이외에도 金麗煌이 8천 兩을, 金謹鏞의 종형 金民鏞이 8천 兩을, 朴遠炯이 6천 兩을, 孫錫權이 4천 兩을, 金壽榮, 朴守林, 王性淳, 그리고 孔聖學의 부친 孔應奎가 3천 兩을, 그리고 崔基鼎, 韓廷鎬가 2천 兩을 기부한 사실이 적혀 있다.⁷⁹⁾ 이것은 『崧陽耆舊詩集』 간행 비용을 분담한 인물들과 『滄江稿』 간행을 분담한 인물들을 통틀어 김진구, 김여황, 김근용, 박원형, 손석권, 김수영, 박수립, 왕성

75)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1 「爲朴直員-在善-題其大人鐵山康翎二郡政績卷後」

76)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2 「朴寧叔回甲壽序」: 김택영은 『崧陽耆舊傳』 「循良」 항목에 박원형의 사적을 추가할 생각을 할 정도로 박원형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77) 다만 鄭載東의 경우 김택영 사후 김택영을 추모하는 만사를 지었고 그것이 『창강선생실기』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김택영에 대한 존모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滄江先生實紀』 권2 「輓詞」(鄭載東)) 또한 高漢周의 경우 孔聖學의 벗으로 개성의 시사인 龍山社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집 출판에 기여이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 (孔聖學, 『春圃詩集』 책1 「挽高侍御-漢周」)

78)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 지역 삼엽(蔘業)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醫史學』18-2, 大韓醫史學會, 2009, 147~150면.

79) 『雜書』 『穆淸殿重建願助成冊』 (奎 21006)

순, 공성학, 최기정, 한정호 등 12인이 재력가였음을 예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들 『송양기구시집』과 『창강고』 간행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들 가운데 김진구, 박원형, 손석권, 김수영, 박수림, 최기정, 한정호, 조병원, 정재동과 김근용의 종형 김민용 및 공성학의 부친 공응규 11인은 1920년 발행된 『善士列傳』에서 개성의 어려운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도와 준 개성의 재력 있는 善士 33인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⁸⁰⁾ 이는 『송양기구시집』과 『창강고』의 간행을 도운 개성 문인들이 상당수 재력가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들은 시기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대한제국기부터 일제식민지시기까지 개성의 자산가 계층에 속하면서 스스로 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문학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송양기구시집』 간행 비용을 분담한 金鎭九의 경우 경제적으로 보면 개성 최고의 부호이자 개성의 대표적 실업가이기도 하지만 실은 어려서부터 詩賦를 잘 지어 문학적 명성이 있었으며 四時佳節에 널리 개성 문인들을 불러 詩酒를 즐겼던 문인이기도 하였다.⁸¹⁾ 『송양기구시집』과 『창강고』의 간행 비용을 분담했던 공성학 역시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藝業을 대표하는 인물로 역시 詩會를 열고 시작을 즐겼던 실업가인 동시에 문인이었다. 공성학은 1949년 평생의 作詩를 절반으로 산삭하여 『春圃詩集』 8책을 출간했는데, 近體詩에 뛰어나 天游(=朴文達)와 滄江(=金澤榮)의

80) 崔基鉉, 『善士列傳』, 日新堂 1920 '朴亨緒'條 : 참고로 이들 개성의 재력가 33인은 다음과 같다. 金鎭九, 孫錫權, 金錫永, 秦柄執, 李祖一, 朴守林, 鄭載東, 崔基鼎, 金元培, 金民鏞, 高俊慶, 馬行達, 金賢圭, 崔永烈, 朴昌植, 孔應奎, 張漢炯, 王在中, 金壽榮, 韓廷鎬, 崔聖勳, 白永基, 曹秉元, 金載旭, 具滋衡, 朴守彬, 金應善, 朴遠炯, 金光奎, 金顯鍾, 朴鳳珪, 朴用俊, 崔相勳.

81) 崔基鉉, 『善士列傳』 日新堂 1920 '金鎭九'條. : 김진구의 行狀을 지은 孫鳳祥도 김진구에게 詩才가 있었음을 특기하고 김진구가 別墅를 지어 개성의 일류 명사들과 풍류를 즐긴 사실을 행장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孫鳳祥, 『韶山集』 권2 『侍從院分侍從清風金公-鎭九-行狀』)

後景이 되겠다는 평을 들었다.⁸²⁾ 국망 전후 『송양기구시집』과 『창강고』가 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문학과 실업을 겸하였던 개성 자산가의 이중성이 개재해 있었다.

4. 식민지 시기 『滄江先生實紀』의 간행과 개성 문인

위에서 보았듯이 개성 문인들은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지역 문화 현장을 위한 다양한 문헌 출간 사업에 기여하였다.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하기 전에는 주로 작품을 창작, 수집, 교정, 비평하는 작업을 통해 김택영을 도왔고,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한 후에는 『창강고』의 간행 사례와 『송양기구시집』의 간행 사례에서 보듯 간행 비용을 분담하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개성 문인들이 이처럼 김택영을 도운 것은 이들이 김택영과 친밀한 인간 관계가 있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 지역 사회에서 재력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택영에 대한 後學의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김택영 생전에 김택영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김택영 사후에도 그를 추모하는 문헌 『滄江先生實紀』를 출간함으로써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개성 문인의 유대를 부단히 지속해 나갔다.

『滄江先生實紀』는 영남의 문인 金相宇의 발의로 개성 문인 孔聖學과 李箕紹가 중심이 되어 여타 문인들의 협력으로 1934년 출간되었다. 김택영 생전 李建昌, 黃玼, 王性淳 등이 김택영을 위해 지은 시문과 김택영 사후 김택영을 추모하는 지우와 후학들의 輓詞와 祭文, 그리고 김택영의 생애를 기록한 李箕紹의 遺事, 李建芳의 墓碣, 卞榮晩의 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

82) 孔聖學, 『春圃詩集』, 『跋』(金瑣鎮)

다. 이 책에 세칭 강화학파에 속하는 李建昌, 李建芳, 鄭丙朝, 鄭寅普 등의 글, 호남 지방의 黃玆, 黃瑗, 權鳳洙, 許奎 등의 글, 영남 지방의 曹兢燮, 河謙鎭, 李炳憲, 卞榮晚 등의 글이 모두 모인 것은 김택영이 이견창, 황현과 교류하며 전국적으로 문명을 떨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기본적으로 김택영을 추모하는 개성 문인들이 제작한 책자였고 책에 실린 다수의 글도 개성 문인들이 지은 것이었다. 이 책에 들어갈 글을 지은 사람들 가운데 개성 문인으로 확인되는 인물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滄江先生實紀』所收 개성 문인 일람

인명	호	권차	작품명	비고
朴文達	天游	권1	贈金于霖	金氏史補
王性淳	敬庵		題滄江先生甲午詩稿後	麗季忠義逸士傳 / 崧陽耆舊詩集 / 滄江稿 / 麗韓十家文鈔
孫鳳祥	韶山	권2	輓詞 / 跋	
馬承圭	敬齋		輓詞	
趙文奎	惺齋		輓詞	
王羽淳	悟堂		輓詞	
金謹鏞	春臯		輓詞 / 跋	崧陽耆舊詩集 / 滄江稿
朴奎大	星史		輓詞	
崔中建	希堂		輓詞	金氏史補
李箕紹	省庵		輓詞 / 遺事	麗韓十家文鈔
林鳳植	梧山		輓詞	
孔聖學	春圃		輓詞 / 書金滄江先生實紀後	崧陽耆舊詩集 / 滄江稿 / 麗韓十家文鈔
張漢炯	台園		輓詞	崧陽耆舊傳
張時淳	野人		輓詞	崧陽耆舊詩集
朴守林	竹下		輓詞	崧陽耆舊詩集 / 滄江稿
鄭載東	省堂		輓詞	崧陽耆舊詩集
金重禧	雙潤	輓詞 / 題滄江先生遺墨後	滄江稿	
玄在德	蘭谷	輓詞 / 跋		
李祖一	江村	권2	輓詞	
金元培	松溪		輓詞	

朴在善	春坡	輓詞	
黃燦	錦西	輓詞	
林光潤	畏堂	輓詞	崧陽耆舊詩集
林冕植		輓詞	
金光鉉		祭文	從子
李賢在		書外祖滄江府君遺墨帖後	外孫
崔致勳		書滄江實紀後	

(출전 : 『滄江先生實紀』)

위 도표에서 보듯 『창강선생실기』에는 전체 27인의 개성 문인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 중에서 『창강선생실기』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李箕紹와 孔聖學인데,⁸³⁾ 이기소는 김택영을 가장 오래 섬긴 문인이라 하여 김택영의 「遺事」를 지을 정도로⁸⁴⁾ 개성 지역에서 김택영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인정 받았고, 공성학은 김택영에게 직접 수학하지는 못했으나 김택영을 존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김택영의 문장을 연구하는 한편⁸⁵⁾ 김택영을 위한 문헌 간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이미 『滄江稿』와 『崧陽耆舊詩集』의 간행에 기여한 바 있거니와 『창강선생실기』 간행도 실질적으로는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⁸⁶⁾ 이기소와 공성학은 김택영의 수제자 王性淳이 편찬한 『麗韓十家文鈔』의 參訂을 담당하였는데, 이 책이 김택영이 편찬한 『麗韓九家文鈔』에 王성순이 선별한 김택영의 문장으로 구성된 사실을 돌아볼 때, 이들이 이 책의 참정을 담당한 것은 이들이 김택영의 문학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에 『창강선생실기』 편간에 참여한 개성 문인들 가운데 오직 이기소와 공성학만 각각 ‘崧陽後學’과 ‘崧陽後生’을 자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83) 『滄江先生實紀』 권2 『滄江先生實紀跋』, (金相宇)

84) 『滄江先生實紀』 권2 『遺事』, (李箕紹)

85) 『滄江先生實紀』 권2 『書金滄江先生實紀後』, (孔聖學)

86) 『滄江先生實紀』 「滄江實紀序」, (鄭寅普) ; 『滄江先生實紀』 권2 『滄江先生實紀跋』, (金相宇)

생각된다.⁸⁷⁾

아울러 이 책의 발문을 지은 孫鳳祥, 金謹鏞, 崔致勳 등도 이기소, 공성학과 더불어 『창강선생실기』 간행 당시 개성 사회에서 김택영의 대표적인 후학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김택영이 중국으로 망명한 후 중국 현지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조선 문헌 간행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개성 문인은 그의 수제자 王性淳이었다. 왕성순은 『麗韓十家文鈔』(1914년)를 편찬하였고, 『校正三國史記』(1916년)를 교정하고 간행 비용을 분담하였으며, 박지원 문집의 중간본인 『重篇朴燕巖先生文集』(1917년)의 參訂을 담당하였고, 김헌기 문집의 중간본인 『重編金堯泉先生集』(1921년)의 발문을 지었다. 김택영이 『여한구가문초』를 편찬하였고 박지원 문집의 초간본인 『연암집』과 『연암속집』을 편간하였으며 김헌기 문집의 초간본인 『초암집』을 편간했던 사실을 돌아볼 때 왕성순이 김택영의 수제자로서 김택영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는 데 충실하게 조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왕성순은 한편으로 스스로 김택영의 편간 활동을 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현지 개성 문인들의 협력을 받아 자신의 편찬물을 만들고 있었다. 왕성순의 『여한십가문초』 작업에 李箕紹와 孔聖學이 참정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왕성순이 편찬한 『閨門軌範』(1915년)을 보면 李箕紹의 參訂과 張愚의 교정, 그리고 왕성순의 벗 金謹鏞의 서문, 秦尙友와 崔致勳과 李箕紹와 孔聖學의 발문을 발견할 수 있다. 개성 문인들이 왕성순의 편찬 활동을 돕고 있었기에 왕성순의 건의로 시작된 『新高麗史』(1924년)는 도중에 왕성순이 별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택영의 편수와 孫鳳祥, 金謹鏞, 孔聖學, 朴在善의 參訂 및 監刊에 의해 완성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기소, 공성학, 손봉상, 김근용, 최치훈 등이 『여한십가문초』

87) 『滄江先生實紀』 권2 「遺事」(李箕紹); 『滄江先生實紀』 권2 「書金滄江先生實紀後」(孔聖學)

또는 『규문계법』 또는 『신고려사』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들이 생애 말년 김택영의 수제자 왕성순의 문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고 왕성순 사후 김택영의 후학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였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이 김택영을 추모하는 『창강선생실기』 편간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자연스런 일로 보인다.

『창강선생실기』에 등장하는 개성 문인들 중에 상당수는 김택영이 생전에 추진한 일련의 문헌 편찬 사업에 참여하여 김택영을 도운 전력이 있다. 위도표 비교에서 보듯이 김택영 사후 김택영을 위한 만사와 『창강선생실기』의 발문을 지은 개성 문인들 중에서 李箕紹, 金謹鏞, 崔中建, 孔聖學, 張漢炯, 張始淳, 朴守林, 鄭載東, 金重禧, 林光潤 등 10인은 『金氏史補』, 『崧陽耆舊傳』, 『崧陽耆舊詩集』, 『滄江稿』, 『麗韓十家文鈔』 등 김택영의 편찬물이나 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하였고,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나머지 孫鳳祥, 馬承圭, 趙文奎, 王羽淳, 朴奎大, 林鳳植, 玄在德, 李祖一, 金元培, 朴在善, 黃燦, 林晃植, 崔致勳 등 13인은 그러한 전력이 없이 『창강선생실기』에서 처음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孫鳳祥은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삼업의 제일인자로 人蔘王의 별칭이 있었으며 개성 成均館 司成과 杜門洞書院 院長을 역임한, 공성학과 더불어 개성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⁸⁸⁾ 그는 김택영에게 수학한 인연은 없었지만 1923년 공성학과 더불어 중국에 건너가 김택영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김택영을 존모하는 마음으로⁸⁹⁾ 『창강선생실기』에 자신의 발문이 반

88) 손봉상의 삼업 활동에 대해서는 양정필, 「1910년대 일제의 蔘業정책과 개성 蔘園主의 활동」, 『역사문제연구』24, 역사문제연구소, 2010 참조.

89) 손봉상은 김택영이 별세하자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지어 존모의 마음을 표했다. (孫鳳祥, 『韶山集』 권1 「輓金滄江-澤榮」)

風雨楚江上 未招古國魂 楚江에서 비바람 맞아 고국에서 초혼하지 못하네.
 泰山埋骨願 已識詩中言 泰山에 뼈 묻겠다는 소원 詩語에서 이미 내비쳤네.
 南國多名士 誰書太史棺 남국에 명사 많은데 누가 太史 관에 글씨를 쓸까.
 天涯故人淚 獨未濕丹旌 하늘가 故人의 눈물로는 붉은 鎭旌 적시지 못하리.

드시 들어가기를 희망하였다.⁹⁰⁾ 손봉상이 타계한 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 가운데 ‘滄江이 세상 버려 애사가 간절했고, 春圃가 마음 알아 눈물 흘렸네’⁹¹⁾라는 구절, 또는 ‘滄江少友’⁹²⁾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손봉상은 조세에 가정사의 불행을 만나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김택영의 벗으로 黃花社 멤버인 崔中建으로부터 지우와 동정을 받아 괴로움을 이겨냈고 최중건의 문학적 경지를 이해하였다.⁹³⁾ 이로 보아 그는 최중건을 통해 김택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1923년 손봉상, 공성학 일행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손봉상을 만난 김택영이 舊面임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이⁹⁴⁾ 일찍부터 김택영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손봉상 역시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龍山吟社의 중심 인물의 하나였다.⁹⁵⁾ 손봉상이 『신고려사』의 參訂과 監刊을 수행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朴在善, 崔致勳, 金元培는 모두 김택영의 벗의 자제였다. 朴在善은 김택영의 벗 朴遠炯의 아들이다. 박원형이 개성의 재력가로 『송양기 구시집』 간행 비용을 분담했음은 전술한 바 있다. 김택영은 박재선의 조부 朴東輔의 묘지명을 지었고,⁹⁶⁾ 박재선의 부친 박원형의 회갑 壽序를 지었거

四載通州別 依依借樹居 네 해 전 通州에서 이별하고 하염없이 借樹亭에 계셨겠지
亭空人已遠 寂寞一床書 정자는 비고 이미 멀리 가셨는데 상 위에 책 하나 쓸쓸하네.
追思前歲臘 分送典墳來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해 선달 옛 책을 나누어 보냈네.
應識有今日 已先收拾回 오늘이 있을 줄 알고 먼저 수습해 돌려 보냈다.
文章兼節義 自古罕雙全 문장에 절의를 겸하였으니 옛부터 둘 다 완전한 이 드물었네.
蹈海成名日 中東兩史傳 蹈海라고 이름 이룬 날, 중국 동국 두 역사에 전하리.

90) 孫鳳祥, 『韶山集』 권2 『與孔聖學』,

91) 孫鳳祥, 『韶山集』 권3 부록 『輓詞』(李學魯)

92) 孫鳳祥, 『韶山集』 권3 부록 『輓詞』(黃瑗)

93) 孫鳳祥, 『韶山集』 권2 『祭崔希堂-中建-文』,

94) 『中游日記』 1923년 4월 13일條 23면

95) 손봉상이 별세한 후 龍山吟社 社員 韓永錫, 張時淳, 閔泳弼, 禹天亨, 金鎮喆, 金謹鏞, 張鼎漢, 李箕韶, 李漢興, 孔聖學, 朴鳳鑣 등이 용산음사 명의로 제문을 지었다. (孫鳳祥, 『韶山集』 권3 附錄 『祭文』) 김근용, 이기소, 공성학 등 개성 사회에서 『창강선생실기』 간행의 중심 인물들이 이 시사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니와,⁹⁷⁾ 박재선을 위해서도 그 별호 春坡에 대한 號說을 지었다.⁹⁸⁾ 박재선이 『신고려사』의 參訂과 監刊을 수행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崔致勳은 김택영의 畏友 崔東赫(1842~1918)의 아들이다. 최동혁은 개성의 재력가이면서 유교 도덕을 실천하여 개성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1909년 순종의 西巡幸 당시 개성의 孝賢 4인의 하나로 손꼽혔다.⁹⁹⁾ 김택영은 최동혁의 묘갈문을 지었고, 최치훈에게도 가풍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시를 지었다.¹⁰⁰⁾ 金元培는 김택영의 먼 친척으로 김원배의 부친은 김택영과 書塾을 함께 다닌 죽마고우였다. 김원배는 1923년 孫鳳祥, 孔聖學, 朴鳳鎭과 동행하여 중국 남통에 가서 김택영을 방문하였는데, 김택영은 이들을 위하여 화답시를 짓는 한편¹⁰¹⁾ 김원배를 위하여 『永思齋記』를 지어 김원배가 선대의 사업을 지키고 계술할 것을 당부하였다.¹⁰²⁾ 김택영은 1921년 김원배의 힘으로 개성의 대유 金憲基의 문집이 간행된 것을 기뻐하는 시를 지어 金元培와 林晁植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¹⁰³⁾ 여기서 김헌기의 문집이란 『重編堯泉先生集』을 가리키는 것으로 1881년 김헌기의 문집 초간본을 간행한 김택영¹⁰⁴⁾으로서는 중간본의 간행에 깊은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다음으로 王羽淳, 林晁植은 모두 김택영의 제자의 친족이었다. 王羽淳은 王庭麟(1842~1918)의 아들인데 김택영의 수제자 王性淳과는 이복형

96)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5 『朴愼菴墓誌銘』

97)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2 『朴寧叔回甲壽序』

98) 金澤榮, 『借樹亭雜收』 권2 『春坡別號說』

99) 金澤榮, 『韶護堂集』 권14 『崔處士墓碣銘』

100) 金澤榮, 『韶護堂集補遺』 권1 『寄崔致勳』

101)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1 『孫韶山-鳳祥-老人偕孔春圃-聖學-金海石-元培-朴-鳳鎭-三君訪余叙舊因贈一律作此奉和兼屬三君』

102)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3 『永思齋記』

103)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6 『寄金參奉-元培-兼贈林主事-晁植』

104) 金憲基, 『初菴集』 『年譜』 辛巳條;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2 『今春與柏堂希堂容齋諸友共刊金堯泉先生-憲基-文集至是而成感賦』

제로 麻田郡守를 지냈다.¹⁰⁵⁾ 왕우순은 마전군수 재직시 왕성순의 도움을 받아 1910년 『麻田郡志』를 간행하였다.¹⁰⁶⁾

林冕植은 김택영의 시제자 林圭永의 질자이다. 임규영은 전술한 것처럼 김택영의 시선집인 『雲山韶護堂詩選』을 편찬한 바 있었는데, 그는 김택영의 전체 문집 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김택영이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도 임황식을 김택영에게 보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성사되지 못했다.¹⁰⁷⁾ 김택영이 1921년 『重編堯泉先生集』이 간행된 일을 기뻐하는 시를 지어 김원배는 물론 임황식에게까지 보인 것으로 보아 임황식도 이 일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김택영의 만사를 지었어야 할 김택영의 수제자 왕성순과 임규영이 모두 김택영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왕우순과 임황식의 만사는 각각 이들의 만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 밖에 林鳳植은 김택영과 교유한 개성 문인으로 보인다. 김택영은 자신의 저작을 칭하는 임봉식에게 1절을 기증하며 시를 지었고,¹⁰⁸⁾ 또한 임봉식을 위해 『永思齋記』를 지어 沃野 林氏 가문의 효의 전통을 표장하였다.¹⁰⁹⁾ 임봉식은 『開城誌』(1934년)와 『高麗人物誌』(1937년)를 편찬, 출간한 문인으로 김택영의 업적을 이어받아 일제식민지시기 개성학에 관한 중요한 문헌을 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馬承圭, 趙文奎, 朴奎大(星史, 1867~1942), 玄在德(蘭谷, 1861~1942), 李祖一(江村, 1864~1938), 黃燦의 경우 아직 김택영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지은 김택영의 輓詞가 『滄江先生實紀』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역시

105)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4 『王通政墓碣銘』

106) 王性淳, 『尤雅堂稿』 권3 『麻田郡志序』

107)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12 『林有瑞墓誌銘』: 공성학은 1938년 임황식의 輓詩에서 '一棹凌渤海, 遠訪滄江師'라는 시구로 이 일을 언급하였다. (孔聖學, 『春圃詩集』 戊寅稿 『挽林壽松-冕植』)

108) 金澤榮, 『韶護堂集續』 권1 『林梧山-鳳植-求拙著余以一部寄贈仍有作』

109) 金澤榮, 『韶護堂續集』 『林氏永思齋記』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¹¹⁰⁾ 이 가운데 조문규(惺齋, 1846~1935)는 개성 사회에서 시작 활동을 활발히 했던 인물로 禹錫亨과 玄在德의 서문이 첨부된 그의 시집 『惺齋詩集』이 1937년 출간되었다.¹¹¹⁾

특기할 것은 『창강선생실기』 간행에 참여한 개성 문인들 중에서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성군관에서 이력을 남긴 유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성 성군관의 直員을 역임한 인물로는 朴在善(1915년), 朴奎大(1922년), 崔中建(1924년), 黃燦(1925년), 李祖一(1925년), 張漢炯(1928년), 林光潤(1933년) 등이 있고, 개성 성군관의 司成을 역임한 인물로는 孔聖學(1924년), 朴奎大(1926년), 孫鳳祥(1928년), 李祖一(1929년), 崔中建(1930년) 등이 있다.¹¹²⁾ 이 가운데 최중건이 김택영의 초년기 황화사 멤버로 김택영과 더불어 金憲基와 韓在濂의 문집 편간에 진력한 인물이고, 공성학이 손봉상과 더불어 개성 삼업의 대표자로 김택영에 대한 투철한 후학 의식을 지니고 김택영의 문헌 출간을 후원한 인물임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들이 개성 성군관의 司業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 말기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이 일제식민지시기에 들어와 개성 유림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110) 馬承主, 趙文奎, 朴奎大, 玄在德, 李祖一, 黃燦 등이 개성 문인이라는 증거는 1910년대 개성에서 결성된 崧陽文藝社에서 출간한 『崧陽集』에 실려 있는 漢文學 작품에서 이들이 개성 출신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또는 1920년대 孫鳳祥和 孔聖學의 중국 여행을 기록한 여행기 『中遊日記』의 ‘五月二十一日鄉中諸先生’條, 역시 손봉상과 공성학의 대만, 홍콩 등지 여행을 기록한 여행기 『鄉臺紀覽』의 ‘鄉中諸彥歡迎會詩’에서 이들이 개성 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111) 趙文奎, 『惺齋詩集』

112) 林鳳植, 『開城誌』 권4 「司成」, 「直員」

5. 맺음말

이상으로 김택영의 생전 그의 문헌 편간 사업을 돕고 김택영 사후에도 그를 추모하는 기념 책자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김택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결집했던 근대 개성 문인들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 보았다. 이들을 전부 합하면 60명으로 집계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항목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 관련 전체 개성 문인 일람¹¹³⁾

개성	字	號	관계	題詠	黃花	初菴	西原	金氏	麗季	耆舊	燕巖	耆舊	耆舊	滄江	滄江	穆清	善士	成均
----	---	---	----	----	----	----	----	----	----	----	----	----	----	----	----	----	----	----

- 113) 표의 항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字>와 <號>의 항목은 金澤榮의 『韶護堂集』(한국고전종합DB) 검색과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거나 『春圃詩集』, 『韶山集』, 『崧陽集』, 『中游日記』, 『香臺紀覽』 등에서 산견되는 개성 문인들의 字號 정보를 얻음으로써 내용을 기입하였다. <관계> 항목은 김택영과 개성 문인의 관계인데, 『소호당집』에서 ‘友’ 또는 ‘少友’라고 명기된 경우 동일하게 내용을 기입하였고 ‘友’ 또는 ‘少友’ 등의 기록은 없으나 내용상 벗으로 확인되는 경우 벗이라고 기입하였다. 그 밖에 다른 유형의 관계도 기입하였다. <題詠> 항목은 『中京誌』와 『開城誌』 『題詠』에 이름이 보이는 문인을 가리키고, <黃花社> 항목은 김택영이 결성한 黃花社에 참여한 문인을 가리킨다. <初菴集> 항목은 金憲基의 『初菴集』 편찬을 도운 문인을 가리키고, <西原家稿> 항목은 韓錫鎬 및 韓在濂 형제의 문집인 『西原家稿』 편찬을 도운 문인을 가리킨다. <金氏史補> 항목은 『金氏史補』 편찬을 도운 문인을 가리키고, <麗季忠義> 항목은 『麗季忠義逸士傳』 편찬을 도운 문인을 가리키고, <耆舊傳> 항목은 『崧陽耆舊傳』 편찬을 도운 문인, <燕巖集> 항목은 박지원의 문집에 評文을 썼거나 박지원 문집 간행 비용을 분담한 문인을 가리킨다. <耆舊詩1> 항목은 『崧陽耆舊詩集』 편찬을 도운 문인, <耆舊詩2> 항목은 『崧陽耆舊詩集』 간행 비용을 분담한 문인, <滄江稿> 항목은 『滄江稿』 간행 비용을 분담한 문인, <滄江實紀> 항목은 『滄江先生實紀』 편간에 참여한 문인을 가리킨다. <穆清殿> 항목은 『穆清殿重建願助成冊』에 이름이 보이는 문인을 가리키고, <善士列傳> 항목은 『善士列傳』 ‘朴亨緒條’에 보이는 33인의 명단에 이름이 보이는 문인을 가리키고, <成均館> 항목은 일제 식민지 시기 開城 成均館 直員 또는 司業을 역임한 문인으로 『開城誌』 『直員』 『司業』에 이름이 보이는 문인을 가리킨다.

문인					社	集	家稿	史補	忠義	傳	集	詩1	詩2	稿	實紀	殿	列傳	館
高漢周	迺豐												○					
孔聖學	允悅	春圃	少友										○	○	○	○	○	○
具重協	寅卿	玉山	友				○											
金光鉉		青劍	從子												○			
金謹鏞	允行	春臯	少友										○	○	○	○	○	
金壽榮	仁汝		三從弟										○	○		○	○	
金信榮	士圭		三從弟				○	○	○									
金麗煌													○			○		
金元培	景仁	松溪	벗의子												○			
金宗煥	周卿												○					
金重熙										○								
金重禧	厚卿	雙澗	벗											○	○			
金鎮九	鶴叟	雙溪											○			○	○	
馬權												○						
馬承圭		敬齋													○			
朴奎大	允長	星史													○			○
朴南澈	子山	石堂	벗	○	○													
朴文達	霽鴻	天游	선진	○			○								○			
朴守林	茂原	竹下	友										○	○	○	○	○	
朴榮紀		堯山	벗		○													
朴遠炯	寧叔		友										○			○	○	
朴寅澈		曉山	벗		○													
朴在善		春坡	友의子												○			○
朴載鉉	子厚	栢堂	友	○	○	○	○			○								
白南軾	希文													○				
白膺絢		愚南	선진	○			○											
孫鳳祥	儀文	韶山	후학												○			○
孫錫權	宜卿	草亭	벗										○	○		○	○	
吳容默							○											
王性淳	原初	敬菴	少友	○				○				○		○	○	○		
王性協	子和	瀟齋	벗		○													
王羽淳		悟堂													○			

첫째, 朴文逵 이래 개성 문단의 핵심을 장악했던 개성 문인들이 모두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 <題詠> 항목에는 김택영의 선진 문인으로 박문규·백응현·윤진우, 김택영의 동료 문인으로 박재현과 박남철, 김택영의 후진 문인으로 왕성순과 임규영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9세기 개성 문학사의 주요 인물로 김택영과 깊은 교유 관계를 갖고 김택영의 문헌 편간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중경지』 또는 『개성지』 「제영」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 문단에서 문학성을 인정 받은 개성 문단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다.

둘째,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하기 전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성 문인은 크게 김택영이 결성한 황화사 멤버들과 김택영의 핵심적인 제자들이었다. 위 표에서 <初菴集>부터 <耆舊詩1>까지 7개 항목에서 2개 항목 이상 참여한 개성 문인들을 보면, 황화사 멤버인 박재현·최중건·한시혁 등은 김택영과 더불어 『초암집』과 『서원가고』의 편간에 참여하였고, 김택영의 핵심적인 제자라 할 왕성순과 임규영은 『여계층의일사전』, 『송양기구전』, 『연암집』, 『송양기구시집』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 김택영의 삼종제 김신영, 김택영의 문생 장시순 등도 『김씨사보』, 『여계층의일사전』, 『송양기구전』, 『송양기구시집』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송양기구전』과 『연암집』 편찬에 참여한 진영렬도 김택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한 후 김택영의 문헌 간행 사업을 지원한 개성 문인은 20세기 전반 개성에서 문학과 실업을 병행한 자산가들이었다. 위 표에서 <耆舊詩2>, <滄江稿> 2개 항목과 <穆淸殿>, <善士列傳> 2개 항목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면, 공성학·김근용·김수영·박수림·손석권 5인은 4개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김진구·박원형·최기정·한정호 4인은 <耆舊詩2>와 <滄江稿> 항목 중에 1개 항목, 그리고 <穆淸殿>과 <善士列傳>의 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김여항·조병

원·왕성순·정재동 4인은 <耆舊詩2>와 <滄江稿> 항목 중에 1개 항목, 그리고 <穆淸殿>과 <善士列傳> 항목 중에 1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상기한 공성학 이하 5인과 김진구 이하 4인과 김여황 이하 4인은 모두 20세기 초반 개성에서 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고 동시에 재력이 있는 문인들이었다고 하겠으며, 상대적으로 공성학 이하 5인이 김여황 이하 4인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耆舊詩2> 항목 전체 15인 중에 12인, 그리고 <滄江稿> 항목 전체 11인 중에 8인이 <穆淸殿> 또는 <善士列傳> 항목과 일치하는 것은 20세기 초반 개성의 자산가 집단이 문학적 소양을 겸비하여 적극적으로 김택영을 위한 문헌 간행 사업을 지원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김택영 사후 김택영을 추모하는 문헌 『滄江先生實紀』의 편간 사업에 참여한 개성 문인들 중에는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성군관에서 사성 또는 직원의 직함을 갖고 중추적으로 활동한 개성 유림이 많았다. 위 표에서 <滄江實紀> 항목의 전체 27인과 <成均館> 항목 전체 9인을 비교하면 공성학·박규대·박재선·손봉상·이조일·임광윤·장한형·최중건·황찬 9인이 두 항목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임광윤·장한형·최중건 3인은 김택영이 중국에 망명을 가기 전부터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로, 이를테면 임광윤은 <耆舊詩1> 항목, 장한형은 <耆舊傳> 항목, 최중건은 <黃花社>·<初菴集>·<西原家稿>·<金氏史補> 항목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나머지 6인은 김택영의 중국 망명 이후의 항목들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공성학을 제외한 박규대·박재선·손봉상·이조일·황찬 5인은 오직 <滄江實紀> 항목과 <成均館> 항목에서만 이름이 보인다. 또한 <成均館> 항목의 전체 9인 중에서 공성학을 제외한 8인은 <穆淸傳> 항목이나 <善士列傳> 항목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滄江實紀> 항목의 전체 27인 중에서 공성학·김근용·박수립·왕성순 4인을 제외한 23인은 <穆淸傳> 항목이나

<善士列傳> 항목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성에서 재력 있는 명사들이 망명 후 김택영의 문헌 간행 사업의 참여도는 높았으나 김택영 사후 추모사업의 참여도는 낮았으며, 또 이들은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유림 내부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택영 추모사업에 결집한 개성 문인들을 구성하는 상당수 집단이 일제식민지시기 개성 유림의 지도부였다는 사실, 특히 개성 성균관 司業을 역임한 공성학·박규대·손봉상·이조일·최중건 5인을 <滄江實紀>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 중에서 김택영의 핵심적인 門人들은 위 표에 집계된 전체 60인 중에서 김택영으로부터 少友라는 호칭을 들었던 공성학·김근용·왕성순·임규영, 그리고 『滄江先生實紀』에서 개성 문인들을 대표하여 김택영의 유사를 지은 이기소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왕성순과 임규영은 망명 이전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김택영의 대표적인 시제자로서, 왕성순은 『麗韓十家文鈔』를 편찬하고 임규영은 『雲山韶護堂詩選』을 편찬함으로써 각각 김택영의 문선과 시선을 만들었다. 임규영의 요절로 이루지 못한 김택영의 문집 간행 작업은 김근용의 주도 하에 개성 문인들의 협력으로 비로소 성사되었으며, 김택영의 망명으로 미처 마치지 못한 『崧陽耆舊詩集』 편찬 작업은 왕성순의 주도 하에 개성 문인들의 협력으로 비로소 완료되었다. 왕성순은 김택영의 수제자로 망명 이후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참여하여 김택영을 도왔고, 다시 왕성순의 『麗韓十家文鈔』 편간과 『閨門軌範』 편간을 돕기 위해 공성학·김근용·이기소·최치훈 등이 결집하였다. 아울러 왕성순의 건의로 시작된 김택영의 필생의 저술 『新高麗史』의 편간을 위해 중간에 별세한 왕성순을 대신해 공성학·김근용·손봉상·박재선 등이 교정과 간행을 책임졌다. 김택영 사후 『滄江先生實紀』의 편간 작업을 주도한 개성 문인은 공성학과 이기소였고, 이들과 더불어 이 책의 발문 또

는 서후문을 지은 김근용·손봉상·최치훈 등이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왕성순의 『麗韓十家文鈔』, 『閨門軌範』, 또는 김택영의 『新高麗史』의 편간을 도운 개성 문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공성학·김근용·이기소 등은 생애 말년의 김택영과 김택영의 수제자 왕성순이 펼쳤던 일련의 문헌 편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핵심적인 개성 문인들이었고, 김택영의 수제자 임규영과 왕성순이 모두 타계한 개성에서 이들은 김택영에 대한 충직한 후학의식으로 김택영을 추모하는 문헌 출간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 복원한 한국 근대 개성 문인들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논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은 지역 문학사의 견지에서 한국 근대 개성 문단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사의 견지에서 보면 한국 근대 개성 사회의 지역적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00년대 개성 사회에서 신교육운동이 전개되었을 때에 이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두 인물이 김택영의 수제자 林圭永과 김택영의 『燕巖集』 간행을 도운 崔文鉉이었고 그 밖에 많은 개성 문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0년대 개성 사회에서 開城文藝社가 결성되어 적극적으로 한문학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에 이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이 김택영의 황화사 멤버인 朴南澈, 그리고 1900년대 임규영과 쌍벽을 이룬 최문현이었고 여기에 많은 개성 문인들이 호응하여 『崧陽集』을 출간, 지역 한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滄江先生實紀』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지만, 개성 문인들은 상당수 식민지 시기 개성 유림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심에는 김택영의 대표적 문인 孔聖學이 있었다. 공성학과 개성 유림은 개성 성균관을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杜門洞書院을 새롭게 건립하고 『杜門洞書院誌』를 출간하여 식민지 시기 개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수립함에 일조하였다. 물론 그는 孫鳳祥과 더불어 식민지 시기 개성 삼업을 대표

하는 실업가이기도 하였지만, 평생 한시 창작을 계속하며 해방 후 『春圃詩集』을 출간, 박문규와 김택영의 뒤를 잇는다는 시평까지 들었던 기본적으로 20세기의 중요한 개성 문인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때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들은 20세기 전반 개성에서 전개된 지역 사회문화 운동의 집합적 주체로서 역사적 중요성이 부여될 수 있다. 20세기 개성 문인들의 지역 사회문화 운동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孔聖學, 『中游日記』(규장각 소장본)
- 孔聖學, 『春圃詩集』(국회도서관 소장본)
- 金誠鎭 著, 『香臺紀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金澤榮 編, 『燕巖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編, 『燕巖續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編, 『重編朴燕巖先生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金澤榮, 『校正三國史記』(『金澤榮全集』所收, 아세아문화사)
- _____, 『金氏史補』(『金澤榮全集』所收, 아세아문화사)
- _____, 『韶護堂集』(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_____, 『崧陽耆舊詩集』(『金澤榮全集』所收, 아세아문화사)
- _____, 『崧陽耆舊傳』(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新高麗史』(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重編韓代崧陽耆舊傳』(『金澤榮全集』所收, 아세아문화사)
- _____, 『滄江先生實紀』(『金澤榮全集』所收, 아세아문화사)
- 金憲基, 『初菴集』(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_____, 『重編金堯泉先生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朴南澈, 『崧陽集』(동아대학교 구덕도서관 소장본)
- 朴文達, 『天游詩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天游集古』(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孫鳳祥, 『韶山集』(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 梁在淳, 『眞山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王性淳, 『閨門軌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麗韓十家文鈔』(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尤雅堂稿』(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 李得英, 『警拙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祖憲, 『蓮士集』(규장각 소장본)
- 林鳳植, 『開城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_____, 『高麗人物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林圭永, 『雲山韶護堂詩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趙文奎, 『惺齋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崔基鉉, 『善士列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崔南善 編修, 『中京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韓錫鎬·韓在洙·韓在濂·韓在洛, 『西原家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穆清殿重建願助成冊』 (규장각 소장본)

2. 논저

-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54, 역사비평사, 2001.
 김덕수, 『寧齋 李建昌의 漢詩 批評 研究 -『雲山韶護堂詩選』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17, 한국한시학회, 2009.
 金承龍, 「尤雅堂 王性淳의 現實認識과 文學에 대하여」, 『漢文學報』7, 우리한문학회, 2002.
 金승룡, 「滄江 金澤榮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人物史研究』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金允朝, 「燕巖 文學의 계승 양상에 관한 한 고찰」, 『漢文學研究』10, 계명대학교 계명한문학회, 1995.
 盧官汎, 「1875~1904년 朴殷植의 朱子學 이해와 教育自強論」, 『韓國史論』4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申炳周, 「화담학과 근기사림의 사상」, 『국학연구』7, 한국국학진흥원, 2005.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 지역 삼엽(蔘業)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醫史學』18-2, 大韓醫史學會, 2009.
 _____, 「1910년대 일제의 蔘業정책과 개성 蔘圃主의 활동」, 『역사문제연구』24, 역사문제연구소, 2010.
 원유한·박재희, 「『開京學』의 成立 및 實學과 連繫」, 『실학사상연구』21, 무악실학회, 2001.
 유봉학, 「朝鮮後期 開城知識人の 동향과 北學思想」, 『奎章閣』1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이은주,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孔聖學의 간행사업 연구」, 『語文學』118, 한국어문학회, 2012.
 정중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崔煥玉, 『金澤榮 文集의 刊行經緯와 異本考』,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최영옥, 『滄江 金澤榮의 중국 망명과 출판사업 의식』, 『韓國思想史學』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崔惠珠, 『韓國에서 金澤榮 研究 現況』, 『史學研究』55·56, 한국사학회, 1998.

Abstract

Kim TaekYeong and Kaeseong writers

Noh, Kwan-bum*

This paper examined the way Kaeseong writers were in the history of local literature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Much interest lies in the mutual relation of KimTaekYeong[金澤榮], the famous Kaeseong poet and his cooperative hometown writers from 1880's until 1930's. It is noticeable that not a few Kaeseong writers helped him compile important anthologies on the local intellectuals of Kaeseong, for example, Choamjib[初菴集], Seoweonkago[西原家稿], Kimssisabo[金氏史補], Sungyangkikujeon[崧陽耆舊傳], Sungyangkiku shijib[崧陽耆舊詩集]. Among them are important Choe JungGeon [崔中建] and Pak JaeHyeon[朴載鉉], his intimate friends in the literary club called Hwanghwasa[黃花社] and Wang SeongSun[王性淳] and Yim KyuYeong[林圭永], his excellent pupils. Also, Kaeseong writers gave him financial support when he decided to publish his own work titled Changganggo[滄江稿] and the local poetic work of his hometown writers titled Sungyangkikushijib[崧陽耆舊詩集]. In this case, Kong SeongHak[孔聖學], one of leading businessman in Kaeseong industry of Ginseng, was a very enthusiastic supporter. More importantly, Kaeseong writers even commemorated him in the anthology titled Changgang seonsaengshilki[滄江先生實紀] after his death. Especially, his eager followers such as Kong SeongHak, Kim KeunYong[金謹鏞], and Yi KiSo[李箕紹] were leading figures in this kind of local cultural event. After all, Kim TaekYeong's Kaeseong writers of the classic Han literature can be given historical importance as the collective subjects of the socio-cultural community movement in the modern Korea.

(Key words) Kim TaekYeong, Kaeseong, Kaeseong writers, Changgangko, Sungyangkikushijib, Changgangseonsaengshilki, community movement

논문 접수일: 2014. 4. 21. 심사 완료일: 2014. 6. 5. 게재 확정일: 2014. 6. 7.

* Assistant Professor, Hallym University / jagang17@hallym.ac.kr